

담배 기호품이다. 기호품중에서도 성인에 한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흡연은 사회문제가 되었다. 공공건물은 물론 대학건물 안에서도 금연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에 대해서 흡연자들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비흡연자들은 간접 흡연의 폐해를 들면서 비흡연권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담배는 다른 기호품과는 다르게 폐해가 있다. 여성의 흡연은 기형아출산의 원인이 되고 청소년의 흡연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흡연자는 말할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흡연자와 비흡연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의 행사이다. 동시에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되는 의무도 갖고 있다. 물론 비흡연자도 담배를 피지 않을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모순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에 따른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일전에 내가 읽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원래 신은 지옥과 천국에 똑 같이 손잡이가 긴 수저와 밥을 주었다고 한다. 오직 손잡이가 긴 수저만을 사용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지옥에서는 손잡이가 너무 길어서 도저히 먹을수 없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서로 긴수저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밥을 먹여줘 배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흡연권과 비흡연권 중 어느것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라고 생각한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